제약 해외법인 설립 활기

녹십자 · 동아제약 등 미국 · 중국에 … 시장다변화 모색

국내 제약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이 활발해지면서 현지법인 · 합작법인 설립으로 의약품 수출시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플랜트 · 기술제휴를 통한 시장다변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이는 의약품시장의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개발도상국들이 자국내의 수입을 규제하는등 무역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현지법인 설립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수출 보다는 플랜트 수출등의 시장확대가 바람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현지법인 형태로 해외에 진출한 관련제약 기업은 8개사에 걸쳐 12개사가 현지법인으로 설립돼 국내 제약기업들의 의약품시장 확산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국내 제약기업 해외 현지법인 설립현황 (단위 : 달러, %)

기업명	현지법인	연도	투자지역	투자액	지분	생산제품
녹 십 자	알파오메가-라보라토리	87	미국(뉴저지)	30만	80	인터페론 연구
		93	인도네시아	1500만	50	B형 간염백신
동 아	동아아메리카	91	미국(캘리포니아)	120만	100	박카스 등 생산
	진아유리	89	중국(청도)	157민	50	의약품 등 생산
	우양무역	90	홍콩	30만	100	중계무역
	동아하이브리드&세라믹	90	미국(메사추세츠)	20만	100	세라믹 등 생산
유 한	인도GTBL	92	인디아(구자라타)	100만	34	리팜피신생산
일 양	뉴욕현지법인		미국(뉴욕)	40만	100	의약품 무역
	양주일양제약유한공사	94	중국(고우)	128만	32	의약품 생산
보 령	금무실업공사	92	홍콩	80만H	51	겔포스 등 수출
신 풍	제네랄메디신	90	수단	33만	33	구충제 등 생산
우 평	멕코팔	93	베트남	250만	51	항생제 등 생산
럭 키	럭키바이오테크	84	미국(캘리포니아)	240만	100	생물공학 연구

국내 제약관련 기업 중 가장 먼저 현지법인을 설치한 기업은 럭키로 의약품 수출보다는 유전자공학 연구소 형태로 신약개발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생물공학분야의 연구활동을 목표로 설립하였다.
국내 순수 제약기업으로 가장 먼저 현지법인을 설립한 기업은 녹십자로 미국 뉴저지에 알파오메가-라보토리를 설립, 인터페론연구를 목적으로 수출시장 확대보다는 연구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아제약이 중국시장에 처음으로 진출, 청도에 진아유리를 합작으로 설립하여 주력 품목인 박카스의 병수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작했다.
이어 유한양행은 인도 구자라타 지역에 리팜피신 원료 생산을 위한 현지법인을 설립, 서남아시장의 수출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으며, 일양약품은 미국에 현지법인 설립에 이어 중국 강소성 고우시에 양주일양제약 유한공사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중국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화학저널 1994/5/9>